

대인예술시장·예술의 거리, 문화르네상스 꿈꾼다

광주시, 2022 문화예술 활성화 거점프로그램 발전방안 수립 용역 상인회·시민·전문가·동구 등 상생협의회의 운영...오는 9월 마무리

광주시가 코로나19 여파와 도시 팽창 등으로 침해한 대인예술시장과 예술의 거리 활성화 사업에 박차를 가한다. 시는 동구청·상인회·시민·전문가 등과 상생협의회를 구성·운영하고, 아시아문화예술 거점 육성 사업에도 힘을 모으기로 했다.

13일 광주시와 동구에 따르면 대인예술시장과 예술의 거리에서 추진하고 있는 '아시아문화예술 활성화 거점프로그램'의 운영 현황을 진단하고 장

기적인 발전방안을 수립하는 용역을 추진한다. 용역 과업은 ▲거점 프로그램 추진현황 및 성과 진단 ▲국내외 예술거점 공간 조사·분석 ▲대인시장, 예술의 거리 등 거점공간 주변 환경 조사 ▲거점 공간과 접목할 수 있는 전략사업 발굴 ▲거점공간 활성화 장기 발전 방안 마련 등이다.

광주시는 이날 중 용역을 발주하고 상인회, 시민, 전문가, 동구 등으로 구성된 상생협의회의 의견

수렴을 거쳐 오는 9월 용역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광주 도심 중심부에 위치한 대인예술시장과 예술의 거리는 시민의 삶과 예술의 소통공간의 역할을 수행해 왔지만, 최근 도시 팽창과 코로나19 여파 등으로 침체의 길을 걷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예술야시장, 공공미술작품 설치, 청년예술가 창작공간 제공, 아트마켓 등 다양한 문화예술체험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활성화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시는 또 광주 동구와 함께 호남지역 최대 중심상권인 충장로 상권을 문화·예술과 청년 문화가 공존하는 '상권문화지구'로 변신시키는 '상권 르네상스

사업'도 진행 중이다. '상권 르네상스 사업'은 낙후된 구도심을 상권활성화 구역으로 지정하고, 상권의 자생적인 경쟁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환경개선과 상권 활성화 사업을 5년간 최대 120억원 규모로 지원한다.

이 사업은 '문화와 예술이 숨 쉬는 행복 충장, ACE상권'을 목표로 충장로의 예술을 느낄 수 있는 '충장예술 창작소' 사업과 골목여행·오매도매게 미장터, 스마트디지털상권 및 지하예술정원 등을 조성하게 된다.

특히 올해부터 본격화하는 빛의 분수대와 충장

로 르네상스 사업이 마무리되면, 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 예술의 거리, 동명동 카페의 거리, 대인예술시장 등과 어울려 광주 동구만의 특화한 대표 관광 자원이 될 것이라는 게 광주 동구의 설명이다.

김준영 광주시 문화관광체육실장은 "이번 용역을 통해 대인예술시장과 예술의 거리에 맞는 콘텐츠와 프로그램을 개발해 유통과 소비가 활발한 명품거리로 특화시키고, 광주문화르네상스 시대를 열겠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김영록 전남지사는 12일 보성군 벌교읍 벌교천 하천재해예방사업 현장을 찾아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공사관계자를 격려했다. <전남도 제공>

전남도, 취약지 생활여건 개조사업 전국 최다

15개 마을 선정 전국의 22%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2022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에 전남도내에서 15개소가 선정됐다. 전국 68개 마을의 22%에 해당하는 비율이다.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은 지역과 주민이 주도해 마을에서 필요한 사업을 기획·추진하고 이를 정부가 지원하는 상향식 공모를 통해 도시지역과 농어촌지역으로 구분해 지원한다. 낙후한 마을을 대상으로 빈집 및 노후주택 정비, 슬레이트 지붕개량, 상·하수도 정비 등 주거환경 개선만이 아니라 문화·복지·일자리 창출 등 주민공동체 활성화도 지원하기 때문에 주민 만족도가 매우 높다.

이번 공모에는 전국 122개 마을이 신청해 도시지역 10곳, 농어촌지역 58곳이 확정됐다.

전남에서는 18개 시·군 23개 마을(도시지역 3, 농어촌지역 20)이 공모에 참여해 도시지역 2개 마을과 농어촌지역 13개 마을이 선정됐다.

도시지역 2개 마을은 ▲강진군 강진읍 송정마을

▲함평군 함평읍 대천·백곡마을이다. 농어촌지역 13개 마을은 ▲순천시 황전면 하검마을 ▲광양시 진상면 신항마을 ▲담양군 장평면 외동마을 ▲곡성군 석곡면 흥지마을 ▲보성군 겸백면 하덕마을 ▲화순군 이양면 쌍봉마을 ▲강진군 병영면 동삼인마을 ▲해남군 옥천면 용동마을 ▲영암군 삼호읍 저두마을 ▲함평군 월야면 북룡마을 ▲영광군 낙월면 안마도지구 ▲진도군 군내면 신기마을 ▲신안군 압해읍 고이지구다. 전남도는 사업 대상 마을에 4년간 도시형 각 30억원, 농어촌형 각 15억원 내외의 국비를 총 230억원 투입한다.

전남도는 사·군의 대상지 발굴부터 공모 계획 수립, 발표 등 평가 단계까지 모든 과정에 참여해 철저히 준비했다. 전문가 자문과 사전평가로 사업 신청서의 완성도를 높이고, 안내문서의 발표 코칭을 하는 등 발표평가에 적극 대응했다. 이 같은 노력이 4년 연속 전국 최다 선정의 성과를 이룬 주요인으로 분석된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전남도, 재해 예방 현장 살펴 벌교 하천범람방지 공사 점검

김영록 전남지사가 지난 12일 보성을 찾아 하천범람 예방을 위해 추진하는 벌교천 하천재해예방사업 공사 진행상황을 점검했다. 벌교천 하천재해 예방사업은 벌교읍 시가지 지대가 하천보다 낮아 집중호우에 따른 침수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추진한다. 총사업비 24억원을 들여 1km구간의 하천을 준설한다. 준설이 완료되면 벌교읍내가 침수 위험에서 벗어나 주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기여할 전망이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이날 공사 관계자로부터 사업 추진 상황 등을 들은 후 "벌교읍 시가지는 1981년 제18호 태풍 '아그니스'로 인해 읍내 전체가 침수 피해를 봤다"며 "큰비가 오면 주민들이 항상 불안한 마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올해 우기철 이전에 사업을 마치고 최대한 안전하고, 벌교천 선착장 구간도 주민이 편히 이용하면서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주문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광주시, '국제스포츠 도시' 비전 디자인 한다

10월 '스포츠도시 국제포럼' 개최
2038광주·대구 아시안게임 유치
23~25일 포럼 보조사업자 공모

광주시는 "오는 10월 국제스포츠 도시의 미래 비전을 마련하기 위한 '스포츠도시 광주, 국제포럼'을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스포츠도시 국제포럼'은 2015하계U대회, 2019세계수영선수권대회 성공 개최를 통해 국제스포츠 도시로서의 역량을 확인한 광주시가 장기적인 광주 스포츠의 미래 발전 전략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포럼은 오는 10월께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리며, 국내외 석학과 스포츠 마케팅 전문가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포럼에서는 2038광주·대구 아시안게임 유치를 위한 전략, 대회 이후 지속 가능한 레거

시사업 발굴 등을 집중 다룰 계획이다.

광주시는 23일부터 25일까지 포럼을 수행할 역량 있는 보조사업자 선정을 위한 공모를 접수해 사업 계획성, 실행 가능성, 수행역량, 사업 이해도 등을 평가해 다음달 최종 사업자를 선정한다. 공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광주시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확인하면 된다.

김선자 광주시 체육진흥과장은 "광주는 국제스포츠 영향력 평가 세계 27위, 아시아 6위에 위치한 국제스포츠 도시"라면서 "더 크고 강한 국제 스포츠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내실 있는 포럼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광주시는 2015하계U대회, 2019세계수영선수권대회 등 두차례 메이저 국제 경기 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한데 이어 지난해 12월5일 세계적인 관광도시 '스페인 마드리드'를 제치고 2022양궁월드컵대회와 2025세계양궁선수권대회를 유치했다. 2022양궁월드컵대회는 오는 5월16일부터 22일까지 광주국제양궁장 일원에서 열린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농업인 안전보험 꼭 가입하세요

전남도, 보험료 80% 지원

전남도가 농작업 중 발생하는 각종 사고와 질병에 대비해 '농업인 안전보험'에 꼭 가입할 것을 당부했다.

농업인 안전보험은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작업 중 생긴 신체 상해와 질병 등을 보상해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정책보험이다.

가입 대상은 만 15세부터 87세까지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이다. 가까운 지역 농축협을 방문해 가입하면 된다.

가입 보험료는 상품 중 기본형인 일반1형 기준 총 10만1000원이다. 국비와 지방비로 보험료의 80%를 지원하며, 농업인은 20%인 2만원만 내면 된다. 보장 내용은 사고유형과 가입상품에 따라 차

이가 있으나 상해·질병 시 입원비와 수술비, 간병비 등을 지급하고, 사망 시 유족급여금과 장례비 등을 보장한다.

지난해까지는 개인 단위로만 가입할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 가족형 상품이 출시되고, 장애·유족급여금도 일시금 외에 연금 방식으로 수령이 가능하다. 자세한 보험 상품별 보장 내용은 가까운 농축협으로 문의하면 된다.

전남도 관계자는 "농촌 인구 고령화로 농작업 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며 "농업인 안전보험은 더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이기 때문에 영농철 시작 전 서둘러 가입해달라"고 당부했다.

지난해 도내 12만3000여 농업인이 안전보험에 가입해 5만4586건의 사고로 164억4800만원의 보험금을 받았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아직도 묘지를 선호하십니까?

자연장의 장점

- 매장이나 봉안에 비해 비용이 매우 저렴합니다.
- 관리가 편하며 반영구적입니다.
- 생활공간과 가깝습니다.
- 국토를 효율적 활용 자연을 보존할 수 있습니다.

전국 3대 명당으로 꼽히는 보성을 아십니까?
그 곳에 수목장이 새롭게 오픈했습니다.
이장부터 안치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성수목장

보성군 노동면 소재

수목장 * 자연장

자연과 인간이 함께하는 새로운 장묘문화입니다

화장한 후 잔디나 화초, 나무 밑에 유골을 묻어 고인을 자연으로 되돌아가게 하는 아름다운 장묘문화입니다.

1522-9341